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안식일에 대한 논쟁

1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2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소." 3 예수께서 대답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5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 보지 못했느냐? 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7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9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0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11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렁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 주지 않겠느냐? 12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13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 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펴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 바리새파 사람들의 음모와 예수님의 반응

1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15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 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16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7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쁘게 할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19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짚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20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도 꺾지 않을 것이다. 21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3 묵상하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벽히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개 조항'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은 것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을 두고 "일을 했다"며 정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에 치중하다가, 정작 안식일 율법을 통해 영혼의 안식을 가르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머리석음이 내게는 없나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신앙적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날을 세우기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셨어도 인류의 희망이 되셨듯이(16-21절) 겸손하고도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그동안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왔던 예배와 찬양과 묵상 등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것들 중에 중심이 사라진 채 해야 한다는 형식과 의무감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잣대로 나만큼 하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고 있었다면 내 안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위선을 몰아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닌다면 왜 저래?, '크리스천이면 이래야 해' 등 정죄하는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 ②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내가 묵묵히 감당할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꺾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아니라 속이 팍 찬 신앙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9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0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11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렁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 주지 않겠느냐? 12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13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 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쪽 펴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 궁금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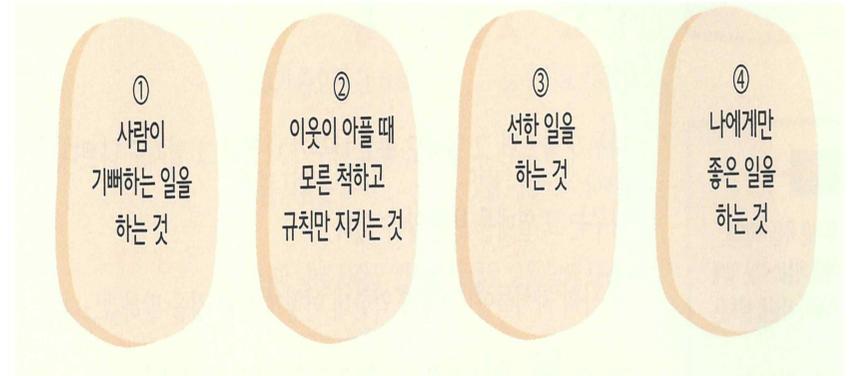
-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쉬는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심
- *회당: 유대 사람들의 모임 장소
- *고소: 법에 고발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함
- *구실: 핑계를 삼을 만한 재료

· 말씀 씨앗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고소할 만한 핑계거리를 찾다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 주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는지 질문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후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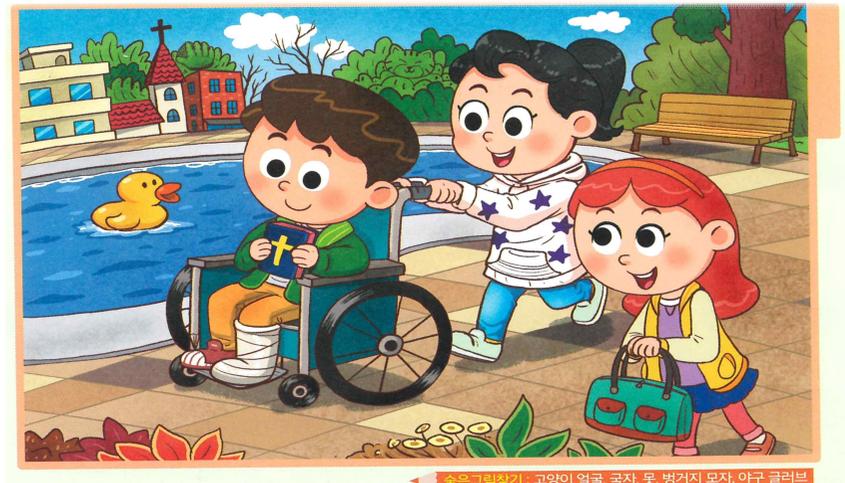
3 말씀 새싹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나요? 알맞은 답의 번호에 O표 하세요. (12점)



5 말씀 열매

그림을 보며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꼭 실천하기로 다짐하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도게 도와주세요.